

‘철인왕후’ 설인아 “섬유유연제 같은 배우 되고 싶어요”

철종 첫사랑·김소용 연적 ‘조화진’ 역

“실제 연애? 솔직하고 배려하는 쪽”

“신혜선, 웃음·배려 넘쳐...김정현, 든든”

“오랜만에 한 사극이어서 많이 부담도 있었고 떨렸는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배우 설인아는 tvN 주말극 ‘철인왕후’ 종영 기념 뉴시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배우, 스태프, 감독과 호흡이 좋아서 제가 생각했던 부담보다 더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지난 14일 종영한 ‘철인왕후’에서 철종(김정현 분)의 첫사랑 ‘조화진’으로 분했다. 철종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흑화되며 김소용(신혜선 분)과 대립했지만 이후 마음을 다잡고 철종의 곁을 스스로 떠났다.

설인아는 “대본이 나오고 화진이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 화진이한테 입을 해서 가끔씩 감정이 더해갈 때가 있었다”며 “변해가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고 사극 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철종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했다. 그는 “실제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생명의 은인으로 착각했다면 저는 ‘난 너의 생명의 은인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실제 연애 스타일은 어떻게. “제 연애 스타일은 배려하는 쪽이라 화진이와 저는 25% 정도 싱크로율이 맞았던 것 같다. 저와 많이 맞는 캐릭터가 아니어서 연기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다.”

인상적인 장면으로는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을 위해 영평군한테 국공장에서 ‘그 시체를 해서 가끔씩 감정이 더해갈 때가 있었다’”며 “변해가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고 사극 톤

“시정자들이 보기에는 ‘화진이’가 미

쳤구나’ 보였을 수 있지만 저는 그때 화진이 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라고 보았고 대본을 읽었을 때 마음이 아팠다.”

함께 호흡한 신혜선, 김정현에 대해서는 “둘 다 연기자로서 함께 연기하는 상대의 연기를 잘 받아주기 때문에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혜선 언니와 할 때는 리허설부터 촬영 습까지 다양하고 생생한 연기가 나올 수 있었다”며 “촬영 배우들 중 제일 많은 스케줄이 있는 언니임에도 항상 웃음과 배려가 넘치는 모습에 많이 배웠다”고 밝혔다.

또 “정현 오빠와는 두 번째 만남이어서 그런지 현장에서 괜한 든든함과 친근함이 느껴졌다”며 “오빠가 그만큼 잘 챙겨주고 집중하는 모습에 함께 더 깊게 빠져들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작 ‘정춘기’에서 박보검 전 여자친구 ‘정지아’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는 “지아는 할 말을 다 하는 성격이라 어떻게 보면 자랑 많이 닳았다”며 “지아는 눈치를 보지 않는 성격인 반면 화진은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지아는 사랑에 있어 본인이 더 우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화진은 지고지순하면서도 질투도 느끼는 캐릭터다. 저와 다른 모습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 연기자로서 감사한 부분 중 하나다.”

2015년 KBS 2TV 드라마 ‘프로듀사’에서 신디(아이유 분)의 고등학생 안태원(오진영)로 데뷔, 안방극장에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옥중화’, ‘힘센여자 도봉순’, ‘학교 2017’, ‘내일도 맑음’,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등에 출연했다.

“연기를 시작한 계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랑 ‘쇼생크탈출’을 보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도 TV에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역할에 대해서는 “요즘 ‘킬링비브’라는 BBC드라마 보면서 ‘빌라벨’이라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며 “장르만 이야기하면 액션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개성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친근한 향이 나는 섬유유연제 같은 배우, 소통을 잘 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기회로 함께 하게 되는 작품 하나하나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예쁘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펜트 키즈, 서울대行 경쟁”... ‘펜트하우스2’

오는 19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



“이제는 서울대행(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SBS TV 새 금토드라마 ‘펜트하우스2’(극본 김순욱/연출 주동민/제작 조국범)이 김현수, 진지희, 김영대, 한지현, 최예빈, 이태빈이 각각 결연한 표정을 드러내고 있는 ‘폭풍전야 현장’이 14일 공개됐다.

오는 19일 첫 방송을 앞둔 ‘펜트하우스2’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서스펜스 복수극이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의 연대와 복수를 그린다.

펜트 키즈들은 ‘펜트하우스’ 시즌 1에서 부모의 그릇된 욕망을 먹고 자라 불안하고 위태로운 행보를 보였다. 김현수는 성악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오윤희(유진)의 딸 배로나 역할을 맡아, 리틀 헤라클레스에게 갖은

모함과 괴롭힘에도 악착같이 버텨나갔다. 하지만 엄마 오윤희가 ‘심수련(이지아)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살인자의 딸로 낙인이 찍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진지희는 강마리(신은경)의 외동딸 유제니 역을 그려냈다. 중학교 시절 악랄한 모함으로 배로나를 ‘학폭위’까지 불러가게 했던 데 이어, 민설아(조수민)를 괴롭혔던 ‘리틀 헤라클레스’ 일원으로 분노를 유발했다. 그러나 최종회에서는 집 문에 적힌 살인자 낙서를 보고 충격으로 서 있던 배로나를 걱정하며 샌드위치 주는 모습으로 몽클함을 자아냈다.

김영대는 주단태(엄기준), 심수련(이지아)의 쌍둥이 아들 주석훈 역, 한지현은 쌍둥이 딸 주석경 역으로 열연을 펼쳤다. 극중 주석훈은 ‘리틀 헤라클레스’ 주축으로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악행을 거듭했지만, 첫사랑 배로나로 인해 각성하면서 주단태에게 반항하고 동생 주석경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등 큰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주석경은 라이벌 하은별(최예빈)을 이기기 위해 아버지 주단태와 위험한 거래를 하는가 하면, 가난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악독한 모습으로 안방극장을 경악케 했던 상황이다.

하은별 역 최예빈은 엄마 천서진(김소용)의 어긋난 모성애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심리 상태를 담아냈다. 부모의 이혼, 천서진의 불륜과 체포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거듭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약을 먹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안겼다.

그러나 최종회에서는 하은별이 할아버지 천명수(정성모)의 죽음과 천서진의 방관을 목격했던 사실이 드러남과 동시에 천서진에게 할아버지를 언급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보여, 변화를 예고했다.

또한 이태빈은 이규진(봉태규)-고상아(윤주희) 아들 이민혁 역으로 분해 ‘리틀 헤라클레스’ 일원으로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악행을 거듭했다. 아버지 이규진이 국회의원인 된 가운데 이민혁의 악행은 또 어디로 향하게 될 지 주목된다.

제작진은 “부모들에게 보고 배운 욕망과 허영,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펜트 키즈들이 내적으로 나 외적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펼쳐질 펜트 키즈들의 활약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펜트하우스2’는 오는 19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블랙핑크 ‘아이스크림’도 넘겼다... 5억뷰 영상 10편

공개된 지 약 170일 만

그들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Ice Cream)’ 뮤직비디오가 5억뷰를 돌파했다.

15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10시56분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5억 회를 넘어섰다. 지난해 8월28일 공개된 지 약 170일 만이다.

이에 따라 블랙핑크는 유튜브에서 5억뷰 이상 영상만 총 10편을 보유하게 됐다. 이 가운데 ‘뚜두뚜두(DDU-DU DDU-DU)’ 뮤직비디오는 15억뷰를 눈앞에 두고 있다.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와 ‘봄바야’ 뮤직비디오는 각각 12억뷰, 11억뷰 고지를 점령했다.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은 세계적인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한 곡으로 주목받았다. 블랙핑크가 데뷔 4년 만에 처음 시도했던 귀엽고 상큼한 콘셉트였다.

발매 당시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13위에 오르며 K팝 걸그룹 최고 순위를 자체 경신했다.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차트 1위는 물론 8주 연속 빌보드 핫100 차트인에 성공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증명했다.

이밖에도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40 차트와 미국 톱 50 차트, 영국 오픈업 싱글 톱 40 차트 등 해외 주요 음악 사이트 상위권을 장식했다. 별다른 활동 없이, 음악과 뮤직비디오만으로 이뤄낸 성과였다.

블랙핑크의 인기곡 경신은 계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음악 시장의 판도 변화를 이끈 주역 중 하나인 유튜브에서 블랙핑크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블랙핑크의 역대부 영상은 총 25편에 이른다.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역시 꾸준히 늘어 현재 5730만 명 이상이다.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중 1위이자 전체 1위인 저스틴 비버의 구독자 수(6090만 명)



를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 추세다. 한편 최근 라이브스트림 콘서트 ‘더 쇼(THE SHOW)’를 성료한 블랙핑크는 솔로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로제는 솔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서브타이틀 곡 ‘곤(GONE)’ 무대를 ‘더 쇼’에서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씨엘, 美 타코벨 TV 광고 등장 “한국 여성 솔로가수 처음”

현재 새 앨범 ‘알파(Alpha)’ 준비에 한창



그들 ‘2NE1’ 출신 가수 씨엘(CL)이 한국 여성 솔로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TV 광고에 등장했다.

15일 소속사 팀베리제리에 따르면, CL은 14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전역을 통해 방송된 ‘타코벨(TACO BELL)’

의 TV광고에 출연했다.

이번 광고에는 배우 노아 센티네오, 틱톡 스타 나바로스, 트랙틱 오너스 블랙, 라이더 브래드 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물들과 함께 나왔다.

팀베리제리는 “K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광고에 출연하는 가수들이 많아졌지만, 미국의 TV광고에 출연한 솔로 여성 가수는 씨엘이 처음이라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씨엘은 지난해 ‘+화(HWA)+’와 ‘+파 이브스타(5STAR)+’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나섰다.

현재 새 앨범 ‘알파(Alpha)’ 준비에 한창이다.

MC몽, 1년4개월 만에 정규 9집... 다음달 2일 발매

다양한 피처링 아티스트와 조합 선보여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이 1년4개월 만에 새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15일 소속사 밀리언마켓에 따르면, MC몽이 오는 3월2일 정규 9집을 발매한다. 지난 2019년 10월 발매한 정규 8집 ‘채널(CHANNEL)’ 이후 처음이다.

앞서 MC몽은 정규 8집을 통해 솔직하고 담백한 자전적 이야기를 선보였다. 특히 송가인, 찬슬러, 박봄, 수란, 쿠기(Coogie)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협업으로 주목 받았다.

MC몽은 정규 8집 발매 이후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협업 프로젝트 ‘엑스 바이 엑스(X by X)’를 통해 가수 김재환과 협업한 ‘봄 같던 그녀가 춤’(Feat. 페노메코)을 발매했다. MBC TV 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 OST를 선보이기도 했다.

밀리언마켓은 “MC몽이 정규 9집에서도 다양한 피처링 아티스트와 조합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선미, 8개월 만에 컴백... ‘꼬리’·‘꽃갈네’

가수 선미가 8개월 만에 신곡을 발매한다.

15일 소속사 어비스컴퍼니에 따르면, 선미는 오는 23일 오후 6시 새 싱글 ‘꼬리’를 공개한다.

타이틀곡 ‘꼬리(TAIL)’와 수록곡 ‘꽃갈네(What The Flower)’로 구성됐다.

특히 선미는 두 곡의 작사 및 공동 작곡을 맡았다.

‘꼬리’는 ‘사이렌(Siren)’, ‘날라리(LALALAY)’, ‘보라빛 밤(pporappippam)’을 함께 작업했던 작곡가 프란츠(FRANTS)와 협업한 곡이다.